

설날 가정 예배

* 인 도 자
“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33~34)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지난 한 해동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설 명절을 맞
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신앙고백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
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435 장 다 함 께

* 기 도 (가족 중 대표자가 기도하시거나 아래 공동기도문을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민족의 고유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 안에서 교제하며 새로운 삶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
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을 더하시는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성경봉독 『사무엘상 2장 27~35절』 다 함 께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
였느냐
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뵈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
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
이며
33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 말 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인 도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가정이 흥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거나 몰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문에도 몰락하는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흥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엘리의 가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의 가정은 왜
몰락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한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
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흥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
나님께서 레위기에 명하신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고,
제사에 사용된 제물도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무엇보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ye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생활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둘째,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주된 원인은 엘리가 아들들에게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시켜야 할 신앙교육은 한 마디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런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본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
을 시켜야 합니다. 바른 신앙교육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의 두 아들을 제사장직에서 폐하신 후 그들을 대신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
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에 의하면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
다. 하나님은 이 충실한 제사장을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제사제도가 폐지된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
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견
고한 집을 세워 주십니다. 즉 흥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설날 이 아침에 여기 모인 모든 식구들이 엘리의 가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존
중히 여기는 삶으로 흥하고 행복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찬 송 384 장 다 함 께

* 주기도문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
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설날 가정 예배



435 나의 영원하신 기업

F. J. Crosby (1820-1915) **주와 동행** (통 492)
모음으로 **주와 동행** (답 2: 11-12) S. J. Van (1818-1884)
CLOSE TO THEE: 8,7,8,7,7,6F.
미베타 이 만이여... 홀로만 또한 함께 왕 노릇 한 것이요

1. 나의 영원하신 기업과 생명의 보물이
2. 세상 부귀와 영광이 다 버려 버리고
3. 어둔 밤에 나의 생명을 다 바치리라

나의 길 갈 길에 이르러도
나의 길 갈 길에 이르러도
나의 길 갈 길에 이르러도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길 갈다가 도록 나와 동행하시어 아멘

384 나의 길 다가도록

(통인 434)

1. 나의 길 다가도록
2. 나의 길 다가도록
3. 나의 길 다가도록

내 주께로 가까이
내 주께로 가까이
내 주께로 가까이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
나의 영혼을 내 주께로